업체탐방

씨닐농산

30여년 농사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씨비닐을 고안 과학영농을 선도해온 씨닐농산(대표·문경완).

씨비닐 제작으로 지난 87년 전국우수 발명품 전시회에서 상공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한 문경완 대표는 올해 또다시 기존 씨비닐의 단점을 보완한 일명 '슈퍼씨비닐'을 새롭게 제작, 보급에 나섰다.

4년전인 지난 92년부터 개발에 착수 지난 가을 실증시험을 거쳐 올봄 새롭게 선보일 슈퍼씨비닐은 기존씨비닐에 비해 종자소모량이 적은 것이 큰 장점이다.

"황기를 예로 들자면 일반씨비닐이 2백50평 파종시 1.5~2㎏의 종자가 소요되는 반면 슈퍼씨비닐은 4백50g~7백g정도면 거뜬하고 발아율도 뒤지지 않습니다"문씨의 설명이다.종전보다 적은양의 종자가소요되기 때문에 보다 균일하게 부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발아된 후 솎아내는 인건비는 그만큼 절감된다고도 볼수 있다.

무엇보다 기존씨비닐과 슈퍼씨비닐의 차별화를 결정하는 특징은 그 형태에 있다. 기존씨비닐의 경우 좌우로 반달모양의 홈을 파고 중앙에 일렬로 씨앗을 부착하는 반면 슈퍼씨비닐은 한 중앙에 2~3개의 씨앗을 부착하고 씨앗을 중심으로 바랑개비 모양의 홈 3개를 파 놓은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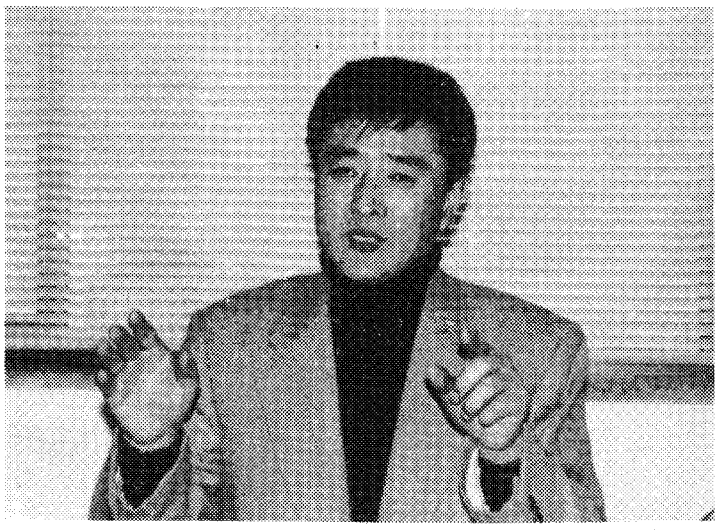
이 방법은 균일하지 않은 토양조건 속에서도 기존의 씨비닐 보다 지면 밀착력이 우수해 복토를 얇게 해도 되고 따라서 발아율도 월등히 높다.

슈퍼씨비닐의 형태적 특성상 제조과정도 기존의 것보다 까다로워 시간이 2배가량 더 소요된다. 그만큼 생산원가에도 차이가 나지만 홍보차원에서 기존씨비닐과 가격차를 거의 두지 않고 농가에 두루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슈퍼씨비닐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중앙(씨앗 부착 부분)을 중심으로 바람개비 모양으로 파인 홈의 크기가 직경 20㎜부터 50㎜까지 다양한데 이는 토양조건(균일정도)에 따라, 비교적 균일한 토양에는 직경이 작은 것. 울퉁불퉁한 토양에는 직경크기가 큰것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러가지에서 기존씨비닐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해 탄생된 슈퍼씨비닐은 황기, 당귀, 백지, 방풍, 강활, 하수오 등 모든 미세약초종자 가공이 가능하며 뿌리 활착력을 높일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농가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전화 : 02-449-8280)



◇씨닐농산대표 문경완씨가 슈퍼씨비닐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슈퍼씨비닐 제작 보급"

반하, 드물게 오름세

구기자 현재 산지에서 거래되고 있는 구기자 도매시세는 근당 7천5백~8천원 선(청양산) 진도산은 근당 8천5백~9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천 궁 토천궁은 근당 6천5백원 선에 일천궁은 근당 3천7백~4천2백원선에 산지거래되고 있다. 한번 떨어진 토천궁 시세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천궁은 보합세 이루고 있다.

산 약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편. 가격변동도 없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산약 도매시세는 근당 4천~4천6백원선으로 보합세다.

하수오 품질에 따라 가격차가 많이 나는 품목. 중품으로는 근당 7천5백~8천원선에 최상품은 1만2천원 선까지 경북 영주에서 거래되고 있다.

반 하 드물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 현재 거래되고 있는 근당 도매시세는 1만4천원 선으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산지동향

택사 국내 수급엔 차질없어

지난해 수입산의 영향으로 반하시세가 8천5백~9천원까지 폭락하는 바람에 그 영향으로 재배면적도 10분의 1로 감소한 때문이다.

강 활 지난해 햇것 출하시기 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이던 강활값이 지난달 보다 더 떨어졌다.

산지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근당 도매시세는 4천원(봉), 3천5백~3천7백(절) 선이다.

택 사 지난달 부터 시세가 오름세로 돌아서는 듯 하자 물량을 내놓지 않고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거래 부진한 상황. 시세도 지난달과 비슷한 3천원선에서 보합세 이루고 있다. 국내 수급에는 차질없을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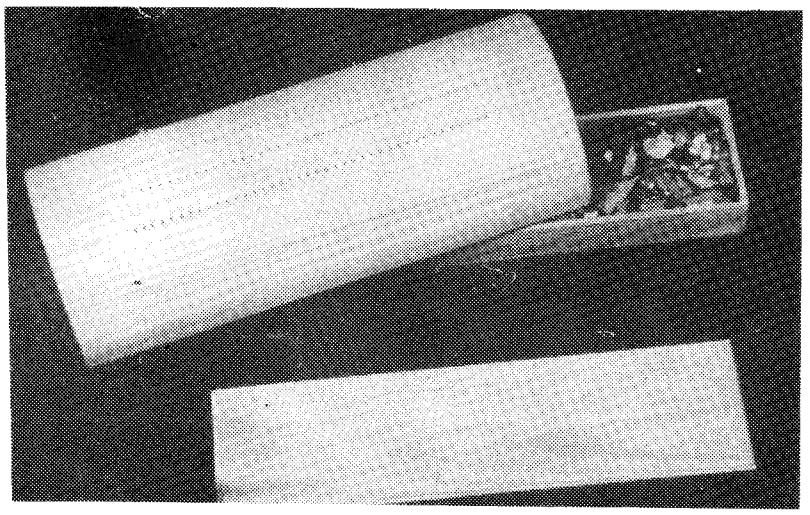
치 자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잇는 치자 근당 도매시세가 지난달 보다 더 떨어진 2천5백~3천원 선이다. 향후 5~6년 간은 하락시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산지인의 분석.

작 약 생산시기 보다 다소 떨어진 근당 2천~2천5백원 선에 도매거래되고 있다.

햇것이 출하되는 올 가을까지는 보합세 이룰 전망. 수확예상량은 예년의 3분의1 수준으로 올 가을쯤에는 작약 시세도 다소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산지인의 분석.

신상품

한방을 과학화한 신비의 잣나무베게



잣나무 통속에 32가지 한약재

동의보감에 수록된 신비의 잣나무 베개 '신침'이 4백여년 만에 재현됐다.

육산기업(대표·강창룡)은 7년여 기간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비로소 최근에야 만족할 만큼 신침을 완성, 시판에 들어갔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모든 질병은 양맥으로부터 오는데 이 신침을 베면 사람의 몸에 풍사(뇌졸증, 중풍)가 침노하지 못하며, 1백일을 사용하면 얼굴빛이 광택이 나고 1년을 사용하면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전신이 향기로워지며, 4년을 사용하면 백발이 검어지고 빠진 이가 다시 난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숙면에는 '신침'이 으뜸으로 불면증이 해소되고 심신이 안정되며 장기간 사용하면 무병 장수하고 고령에도 두발이 검어진다고 한다.

'신침'은 잣나무 통 속에 넣은 한 약재가 목에 닿는 부분에 뚫어놓은 작은 구멍을 통해 약기가 나와 비강점막을 통한 향취 흡수를 가능케 하도록 만든 것이다.

베개의 베는 쪽 뚜껑은 잣나무 속의 색이 붉은 부분을 택하여 그 두께를 2푼으로 하되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였고, 뚜껑에는 좁쌀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구멍을 세줄로 한줄에 40구멍씩 모두 1백20구멍을 뚫어 놓은 것이다.

그 속에는 천궁 당귀, 백지, 인삼, 고본, 백출, 두형, 천초 등 32가지 약재를 알맞게 배치하여 베개속에 채운다음 포낭을 만들어 배개에 입혀서 사용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침'은 잣나무에서 나오는 독특한 성분과 명약의 절묘한 효능이 함께 어우러져 중풍을 막아주고 정신은 더욱 맑게, 기억력은 뛰어나게 해준다.또한 신경성 두통과 불면증 해소를 비롯해 수족냉증, 목디스크 코골이가 정지되며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는데 탁월한 효험이 있다고 동의보감은 전한다.

(육산기업 : 02-277-8727)